오계 수지한 장병들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다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7.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현장

논산 육군훈련소=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일면 스님으로부터 연비를 받은 장병들은 계율을 지키며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9월 2일 수계법회
일면 스님, 오계 설하며 장병에 연비
1000여 장병들 동참…참회진언 봉독
삼보륜 도장 연비 받고 불자 거듭나
댄스 등 문화공연에 장병들 큰 호응

"저희 수계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했습니다. 이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진리가 아닌 가르침은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귀의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는 세상의 으뜸가는 진리입니다. 자비하신 마음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1000여 명의 훈련병들이 군법당에서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2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여일 조성한 법사) 큰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지 3년만에 치러진 것이라 의미를 더했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김병주 국회의원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정현숙 후원회장, 불암사 전보현자 신도회장, 생명나눔실천본부 곽혜란 홍보위원, 이용환 육군훈련소장 및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단과 훈련소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들이 참석했다. 장병 10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청성, 청법가, 청사, 개도, 참회, 연비, 귀의, 선계상 및 법문, 발원, 계첩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계사로 나선 일면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의 의미를 설했다. 스님은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근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된다"면서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또한 부처님이 되는 터전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하고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면 등불이 있어야 하며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하고 병든 사람은 약을 먹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생사윤회를 벗어나 부처님이 되려면 삼귀의례와 오계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면 스님은 △생명을 죽이지 말 것 △도둑질 하지 말 것 △사음하지 말 것 △거짓말 하지 말 것 △술 취하지 말 것 등 오계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스님은 "부처님 오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신조이며 행동 강령"이라면서 "오계를 지키는 것은 자기 발견의 길이며 참생명 회복의 길이요 해탈의 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를 받는 것은 천 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전깃불을 밝히는 것과 같이 억겁의 무명을 일시에 타파하는 순간"이라면서 "수계는 크나큰 이익이 돼 계를 받은 장병들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축언했다.

연비는 향 대신 삼보륜 도장으로 대신했다. 대표 수계자 장병 7명이 단상에 올라 일면 스님으로부터 직접 연비를 받았다. 일면 스님은 계첩과 합장주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 소속 포교사 11명이 연비를 도왔다. 장병들은 포교사들이 다가오면 왼쪽 팔소매를 걷어 연비를 받고 다른 장병들의 연비가 모두 끝날 때까지 참회진언을 외었다.

이날 법회는 수계 이전 오계를 어긴 과거를 참회하고 앞으로 오계를 어긋남 없이 지킬 것을 서원하는 자리가 됐다. 장병들은 "수계한 공덕으로 삼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면서 "수계한 공덕을 법계의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두 보리심을 발하게 하며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장엄하겠다"고 발원했다. 또 "영원과 자유를 구현하고 모든 중생을 교화해 원수와 친한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며 삶과 죽음의 윤회를 해탈케 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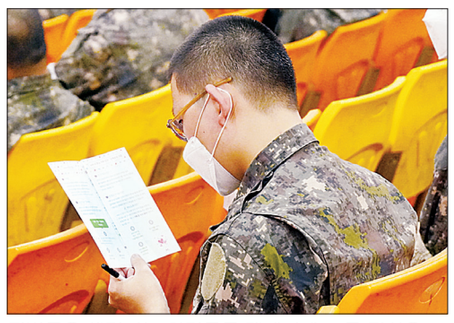
이날 수계법회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 예비역 육군대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의 역임하며 30여 년간 군생활을 한 김병주 의원은 이날만큼은 선배로서 장병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들이 헌신해 준 덕분에 국가와 국민이 평안하다"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수계법회가 끝난 후 2부에서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준비한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마하무용단과 의정부 광동고 · 남양주 광동고 댄스 동아리, 국악소녀 이소원과 임지민의 공연이 이어졌다. 장병들은 화려한 공연에 뜨겁게 환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수계법회에 앞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알리는 홍보 시간을 통해 장병들의 동참을 이끌기도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5년부터 논산 육군훈련소와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많은 훈련병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으며 현재 그 누적인원이 9000명에 이른다.



호국연무사서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육군훈련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장병들은 생명나눔 희망등록 캠페인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수계법회 후 열린 문화공연에서 장병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수계법회는 코로나19 후 3년 만에 치러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생명나눔은 9월 7일 박다윤 환아에 치료비 4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현대불교신문 사장 혜도 스님이 참석했다.

발달장애 환아에 400만원 지원

9월 7일, 혜도 스님 담당 복지사에 전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7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환자치료비지원 전달식을 갖고 박다윤(7세, 가명) 환아에게 400만원을 지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사장 혜도 스님이 박다윤 환아를 대신해 참석한 큰솔병원 담당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9월 치료비 지원에 선정된 박다윤 환아는 발달장애와 뇌병변 장애 2급을 진단받아 만1~2세 발달수준을 보이는 아동이다. 자기조절능력이 낮아 요구사항이 있으면 머리를 박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자해행동을 반복하다보니 다윤이의 생활에 어머니가 항상 함께 해야하는 상황이다.

다윤이의 치료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는 직장 퇴근 이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다윤이의 치료비를 포함한 7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면서 다윤이는 잠시 치료를 중단해야 했지만 이번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주 2회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비를 전달한 현대불교신문 사장 혜도 스님은 "발달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인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치료를 중단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에 이달의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지원이 다윤이의 가족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당신의 아름다운 선택"
장기기증 희망등록
홈페이지 www.lisa.or.kr
전 화 02)734-8050
팩 스 02)734-8052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제15회 불암사 산사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 30주년 The 30th Anniversary
새로운 도약, 여러분과 함께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
출연진 | 마하무용단, 비니쌤, 배근호, 주권기, 코리아로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광동고 댄스팀
TEL. 02-734-8050 (생명나눔) 031-527-8345 (불암사)